충해·박락·변색…건조물 불교유산 보존 '시급'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조물 정기조사보고서' 살펴보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유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유산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를 통해 주의관찰, 정밀진단, 보수 판정을 받은 건조물 유산 중 대다수가 불교유산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신속한 보존처리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성과를 담은 '2023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서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경기),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보물, 충북),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전북), 경주 태종무열왕릉비(국보, 경북) 등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총 207건(국보 18건, 보물 189건)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정기조사 결과 △A등급(양호) 57%(117건) △B등급(경미보수) 3%(7건) △C등급(주의관찰) 32%(67건) △D등급(정밀진단) 2%(5건) △E등급(보수) 3%(7건) △기타(보수 중) 2%(4건)로 집계됐다.

이중 C·D·E 등급 진단을 받은 건조물 유산 중 대다수가 불교유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C등급 진단을 받은 67건의 유산 중 41건이, D등급은 5건 중 2건이, E등급 판정을 받은 7건 중 6건이 불교유산이었다.

보수가 필요한 E등급 진단을 받은 불교유산은 △대구 동화사 봉황문(보물)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보물)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동화사 봉화문은 기단부의 기단석 및 계단석 일부가 이격됐으며, 벽체 4면이 전체적으로 충해와 습해흔 등에 인해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면 좌·우측 기둥의 기욺과 기와열의 이완 등 구조적 손상도 다수 관찰됐다.

또한, 조사를 진행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이하 안전방재실)은 "봉황문의 기단부가 경사진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진동과 유수 유입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대비해 완충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은 벽체와 내부 벽화의 균열 및 탈락이 다수 확인되며, 기단부의 균 및 돌출도 조사됐다. 기둥과 평방 등에서 충해흔이 보였으며, 단청도 전반적으로 퇴색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안전방재실은 "정면 좌측 기단이 침하되고 활주 초석에서 수직 균열과 변형이 확인돼 부분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보수' 진단 7건 중 6건 '불교유산'

'주의관찰'은 41건, '진단'은 2건

목조 건축물서 '충해' 공통 확인돼

국가유산청 "내년 예산 반영해 보수"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는 귀부 표면이 이전 조사(2018년)보다 흑색 변색 및 지의류 오염이 심화됐으며, 비좌의 균열이 이뤄져 비가 올 경우 물이 침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방재실은 "고달사지는 정비됐으나 주변에 다수의 수목과 개천이 있고, 배수와 환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존처리와 함께 주변 환경 분석 및 탑비의 풍화도 등 상태를 분석해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진단들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신속한 보존처리를 약속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단체에 공유해 현재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구 동화사 봉황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반영해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유산 정기조사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예방적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841건이며, 올해는 21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2023년도 보고서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도 공개됐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수사 대웅전·고운사 가운루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7월 17일 지정 공고

조선 전 · 중기 佛殿 가치 인정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대웅전(사진 왼쪽)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사진 오른쪽).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불전(佛殿)이다.

고창 문수사는 64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문수사 창건기'(1758)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됐고, 1653년(효종 4) 회적 성오 화상에 의해 또다시 고쳐지어졌다. 그 다음해 1654년 제자인 상유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 형식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 전~중기에 이르는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의성 고운사는 의상 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 '고운사사적비(1918)'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됐음이 확인된다.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3짱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 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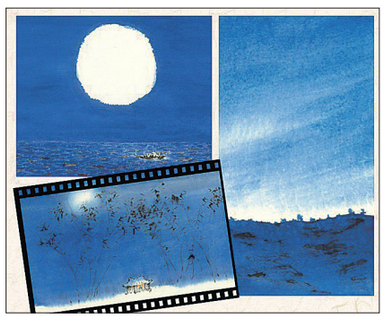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사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물로 지정한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자연이 들려주는 '불언지교'의 풍경

〈不言之教〉

김양수 화가 시화집 출간 기념전

7월 20일~8월 20일 여귀산미술관



한국화가 김양수가 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를 출간하고 기념전을 연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도군 여귀산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양수 선 시화집 출판 기념전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그대가 부처' 등 22점의 그림과 시가 전시된다.

회화적 관점에서 김양수 화백의 작품을 바라보면 그림의 정적인 아름다움이 쉽게 다가온다. 김 화백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고요한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원초의 시간성을 의미하는 바위의 단단함과 세상의 변화를 품은 물결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지엽 경기대 명예교수는 "한데 어우러져 있으나 나름의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는 듯 보이나 하나처럼 보이는, 대자연이 들려주는 불언지교(不言之教)의 참뜻을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2023년 여름에 그의 화실 '적염산방'을 화마로 인해 통째로 잃어야 했다. 목숨과도 같은 작품들도 남김없이 재가 됐다. 그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 그렇게 그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의 그림을 바라보면 그의 그림은 놀랍다. 그의 그림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늑하고, 시는 세상을 따뜻하게 껴안고 있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중국 중앙미술대학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3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했다. 박재완 기자

